

“기초 소양 vs 전공 쏠림” 수학 통합출제 관건

2022 대입 개편안 8월 확정 현 중3 수능 보고 대학 지원 통합사회·과학 신설 논의도

교육부가 최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는 11월 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후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수시·정시 구분 없이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시를 크게 바꾸는 안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2 대입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의 검토,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수학을 현행처럼 가/나형으로 분리 출제할지 혹은 통합 출제할지,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에 어떻게 추가할지 여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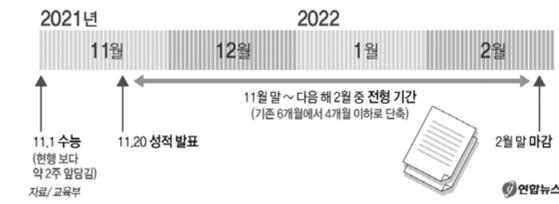
현행 수능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최대 2과목 선택), 제2외국어/한문 등 최대 7개 영역이다.

수학은 자연계열에 진학할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가형과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나형으로 분리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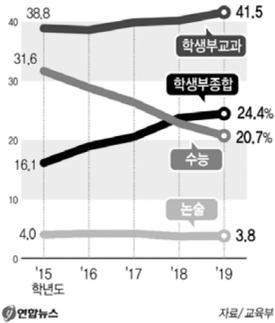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3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 수능 시험영역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단일과목으로 신설하는 대신, 기존에 탐구 선택과목 수를 기존 최대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방식이다.

수시·정시통합안 대입 선발 일정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대입전형 비중 변화 추이



탐구과목 종류는 사회탐구의 경우 현행처럼 9과목으로 하되, 과학탐구는 현행 8과목에서 심화과목 4과목(물리II, 화학II, 생물II, 화학II)을 제외한다. 추가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수험 부담을 고려해 절대평가로 점수를 매긴다.

이에 비해 2안은 수학 가/나형을 분리하지 않고 단일형으로 출제하는 방안이다.

통합사회는 사회탐구 선택과목 가운데 하나로, 통합과학은 과학탐구 선택과목 가운데 하나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3안은 현행과 똑같은 방식이다. 수학 가/나형이 분리되고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추가되지 않는다.

교육계에서는 수학 문·이과 통합의 경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분석했다.

수업방식과 교과서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정부는 앞으로 학생들이 문과와 이과를 나누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기초소양을 기르도록 했다.

하지만 수학의 경우 문·이과 구분이 대학 모집단위와 맞물려 있다.

수학 가/나형을 합쳐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치를 경우 시험범위가 기존의 문과 수학 쪽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의·치·약대 쏠림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대

학이 신입생을 '전공불문'으로 뽑는다면 모르지만 현 상황에서 수학을 통합 출제하면 이과 쏠림이 심해지고 문과는 경제·경영 등 일부 학과 외에는 살아남기 어렵다”며 “문·이과 통합이라는 명제 성립에만 급급해 그냥 수학을 통합하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현행 수학 시험 체제를 유지한다면 문·이과 분리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새 교육과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셈이 된다.

모든 고교 1학년생이 사회·과학분야 기초소양을 기르기 위해 배우는 통합사회·통합과학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기본이다 교육과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에 출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8종에 달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검정교과서의 내용이 각각 다르고 내용의 깊이는 기초적인 수준이라해도 범위를 넓을 수 있어 수험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며, 출제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융합 교과목의 특성상 객관식 시험을 치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새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에 넣지 않으면 이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가 떨어져 이 때문에 결국 교육과정과 입시가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남뉴스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신입생 전원이 '젊은 스타틀러 선언'을 하고 있다.

‘미래 호텔리어들’ 지역 관광 주역 다짐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20주년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학과장 이희승)는 최근 IT스퀘어에서 '2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 및 제8회 젊은 스타틀러 선언식'을 진행했다.

호텔경영학과 교수진과 학생 1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희승 교수는 학과 개설 20주년을 맞아 '휴미락(休味樂)서비스 분야 지역 거점 대학 구현'이라는 학과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또 4차산업혁명을 맞아 시대 변화에 따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목표와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제시했다. 휴미락(休味樂)산업은 심(숙박), 맛(음식), 즐거움(여가)에 관련된 서비스를 일컫는 말이다.

이어 열린 제8회 젊은 스타틀러 선언식에서는 호텔경영학과 신입생 전원이 현대호텔경영기술의 근대화를 이룬 최고의 호텔리어인 스타틀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젊은 스타틀러 선언과 호텔리어의 상징인 명찰 수여식을 통해 서비스 산업분야 미래 리더로 성장을 다짐했다.

1998년 호남지역 최초의 개설된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전국 4년제 대학 호텔경영학과 중 유일하게 교육부지정 방대특성화사업 선정됐다. 광주·전남 지역 최초의 해외특급호텔 취업 등 호텔경영분야는 물론 지역 관광, MICE산업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우산매일시장에 기운 '딱딱'

광주여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광주여자대학교가 대학이 보유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접목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16일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에 따르면 광주여대 산학협력단(단장 박병건)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대학협력사업'에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한다. 해당 사업은 대학과 전통시장을 연계해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 콘텐츠, 서비스, 축제 등을 개발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여대는 특화 교육인 MAUM교육을 기반으로 여대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교수진의 기술을 연계해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장 대표상품 개발, 시제품 개발, 파워기자단을 통한 시장 홍보를 통해 우산매일시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동아리 '카이로힐링'이 광주시 동구 경로당에서 마사지 치료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르신들 ‘시원해’ 한마디에 보람 느껴요”

남부대생 마사지 재능기부

남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동아리 카이로힐링이 '2018년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을 바탕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친다. 광주 동구에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11

월 말까지 진행하며 10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봉사에는 남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호남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조선대학교 보안대체의학과 박사협회의 등이 참여한다.

남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카이로 힐링은 동구 충수, 장원, 장원부녀, 무등부녀, 무등파크1차, 화산 경로당 등을 방문해 치료 마사지 및 스트레칭, 스포츠테이핑 등을 한다.

남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카이로힐링 동아리회장 여성근(3년)씨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우리의 노력과 재능으로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대학 기술사업화 국비 최다 확보

‘브리지’ 사업 총 36억여원

전남대학교가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BRIDGE+사업)'에 선정됐다.

15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가 이 사업과 관련 전국 18개 선정 대학에 포함돼 연간 7억3000만원씩 5년간 사업비 36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사업비 규모는 전국 최다라고 전남대는 밝혔다.

BRIDGE+사업은 대학의 유망기술을 이전하거나 대학 간 자율협업을 통한 융·복합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전남대 산학협력단(단장 송진규)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수행했던 1기 BRIDGE 사업의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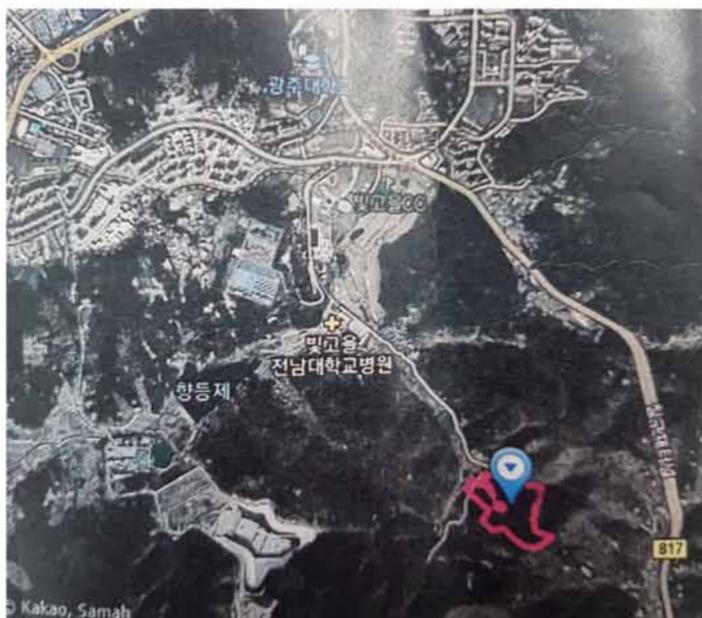
적 대학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해 선정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고부가가치 유망기술 실용화 전략, 대학 창업펀드 조성 및 투자, 기업 멤버십(CNU 100 Club) 운영 등을 통해 BRIDGE+의 비전을 구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남대는 BRIDGE+ 사업을 통해 기업의 최종수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유망기술 발굴, R&BD기획, 자산 고도화, 기술 이전·창업 및 후속 사업화 등을 아우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병석 총장은 “BRIDGE+ 사업은 대학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모델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과 상생하는 산학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2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8만원~~ - 급매 5만원 (일시불 원불조건)
- 문의. 010-6838-1230